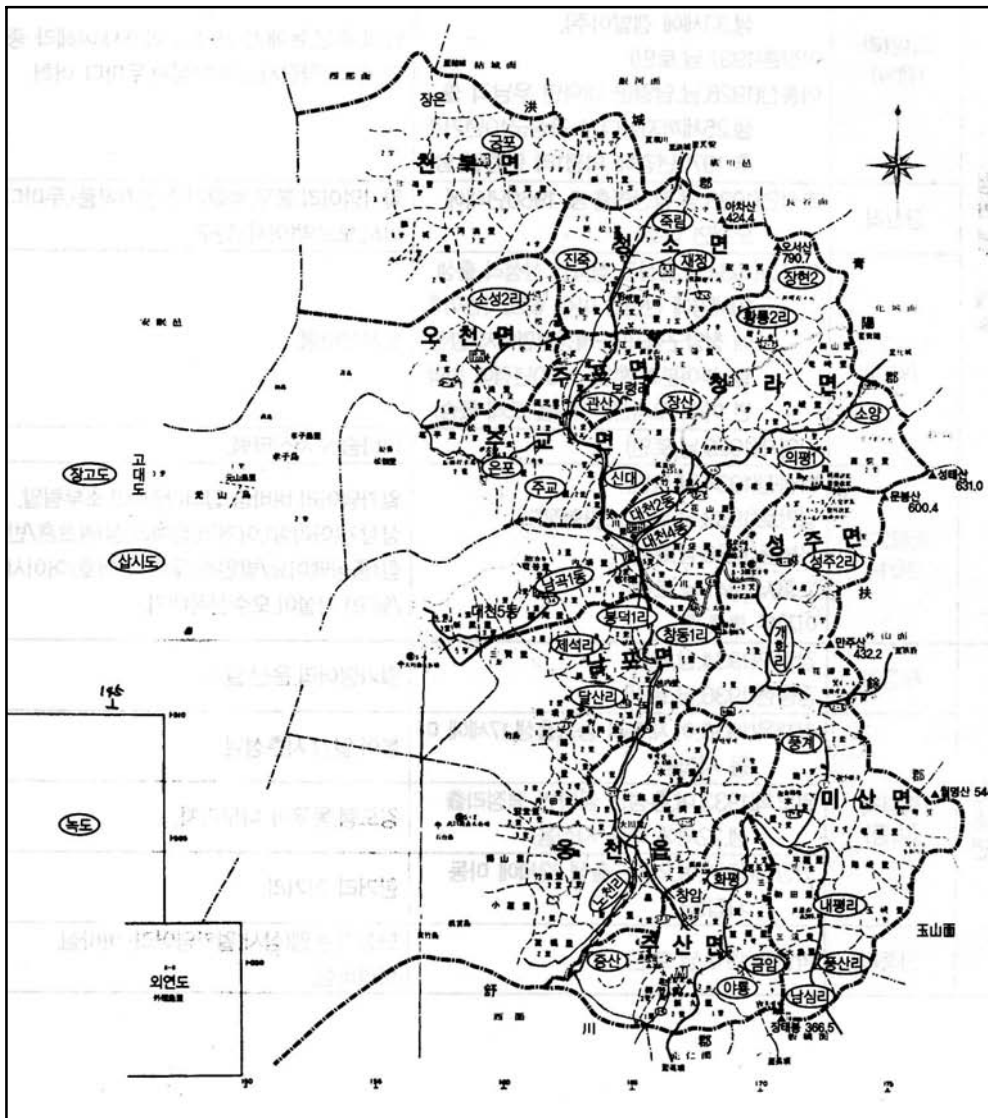


제5장 민요

1. 조사 개요



보령민요의 녹음지역

필자¹⁾의 보령지역 민요녹음은 1987년과 1990년, 2002년 및 2005년에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방문 내지 녹음된 마을은 대천2동·대천4동(명천동)·대천5동(남곡1동 탑동), 웅천읍 노천리, 남포면의 달산리·봉덕리·제석리·창동1리(농장), 미산면의 내평리·풍산리·풍계리·남심리, 성주면의 개화리와 성주2리, 오천면의 소성2리·삼시도리·녹도·장고도, 주교면의 신대리(목리)·은포리·주교리, 주산면의 야룡리·금암4리(청석교)·야룡리·증산리·화평리(약현), 주포면 관산리, 천북면의 궁포리와 장은리, 청라면의 소양리·의평리(괌밭)·장산리·장현2리(명대)·황룡2리(송충), 청소면의 재정리·죽림리(마동)·진죽리이다. <도>참조. 가창자에 대하여는 필자 집필의 『보령의 민요』(2005.대천문화원). 14-25쪽 참조.

보령지방에서는 1980년도까지 논을 매는 지역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양력 4월 5일에 범씨(씨나락)를 담그며, 4월 15일~4월 20일에 못자리를 만든다(곡우 낙종). 6월 7, 8일 보리망종 때 올모를 심고, 하지(양력 6월 21일경) 때 중모를 심는다. 비가 안 오면 늦모를 소서까지도 심었다. 모심고 나서 20일 있다가 ‘결망’(모가 뜬 것을 잘 꽃고, 돌피 같은 것 있으면 걷어내고 뽑고 한다)했다.

열흘 후에 호미로 아시매기를 했으며, 또 열흘이 지나고서 두벌을 호미로 땀다. 남포면 창동1리에서는 유월유두 때 두벌두레가 나갔다. 두벌 후 10일 내지 20일 사이에 손으로 만물을 맨다. 6·25사변 이전까지는 두레로 논을 매었다. 두레매기 때는 1가구 1명씩 나오며 농본기(農本旗), 영기(令旗) 들을 앞세웠다.

청소면 재정리에서는 두레 논매기꾼이 100여 명에 달하였고 꿩, 징, 장구, 복수가 뒤따랐다. 남포면 창동1리에서는 칠월칠석날 건두레를 열었는데 논이 열 마지기 이상인 사람은 부자로 여겨져 건두레날에 돈 얼마씩을 찬조했으며, 어른 품앗이에 들러는 사람은 진사술을 내었다. 건두레 행사는 해방 후에도 몇 회 행해진 것 같다. 모심을 때는 1마지기에 1명꼴로, 논맬 때는 2명꼴로 작업하는 경향이다.

보령지방의 노동요(일노래)로는 광의의 농업노동요로서 모심기, 논맬소리, 개상질(벼바심)소리, 귀갓길소리, 밭매기, 도리개질소리, 물품기, 흙가래질소리, 삼삼기노래, 소부림말과 어업노동요로서 주목망 어로요, 짚줄꼬는 소리, 줄사리는소리, 배치기, 갈치잡이노래, 굴따며 하던 노래 등이, 기타의 잡업요(雜業謠)로는 터다짐소리(집터, 못터, 말박음), 흙올림소리 등이 녹음되었다.

동요 및 처녀·총각들의 놀이요로는 애기어름소리, 동물요(잠자리, 부엉이, 까치), 다리

1) 이소라(민족음악연구소 대표, 문화재청 전문위원)

혜는 소리, 말잇기, 자장가, 등불씨기노래, 접신(接神)놀이노래 등이 발견되며, 흥민요로는 오서산타령, 금상열이나, 강도령, 사춘성님, 진도아리랑, 양산도, 청춘가, 도라지타령, 각설이, 약장사소리, 백골가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의식요(儀式謠)로는 당계축문, 안택고사, 여러 가지 독경 및 상례에 관계되는 초혼, 반함, 널액막음소리, 발인축, 운상(運喪)소리, 회다지는 소리 및 묘터 가래질소리가 수집된다.

2. 보령 민요의 특색

보령시는 동쪽으로 부여군과 남쪽으로 서천군에 인접되어 있지만, 민요에 있어서는 북방에 있는 홍성군 방면에서의 영향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홍성군 결성방면이 문화중심(cultural center)인 겹상사류의 모심는소리에서도 그러하며, 충남을 대표하는 논뿔소리인 얼카덩어리류의 문화중심처에 맞닿아 있는데도 그 흐름이 보령지방에서 끝나고 서천지방에 이르지 못한 점도 그러하다. 천북면의 민요는 서부 홍성권에 속한다.

충남 벼바심소리의 중심지대에 밀착해 있는 관계로 벼바심소리 수집이 쉬운 편이지만, 죽가래질소리나 부여·서천군이 문화중심인 나부질소리는 찾아지지 않았다. 부여형 상사(일명 산유화가)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서천형 모심는소리는 미산면 내평리 등에 그 흔적이 미약하나마 보이며, 부여군과 서천군에서 애용한 먼들소리를 주포면과 청라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충남의 복합문화권적 특색이 집터다짐소리(경상도가 진원지인 차류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밖에 전라도의 상사류, 및 달고류가 공존), 다양한 선법의 공존(곡의 종류에 따라 도선법 계통이나 술선법 계통의 우세. 육자배기 선법의 가미 등) 등을 통해 보령민요에서도 나타난다.

앞은곳 지대이며, 상여를 들고 내릴 때 “우여 우여 우여 우여”하며 요령을 갖게 흔드는 마을이 있다든지 비닐차류의 운상소리, 꼬택각시의 존재는 충남민요로서의 성격을 말해 준다.

풍부한 어로요, 흙올리기소리, 종와소리, 궁포리 산요, 노천 만물소리, 술미소리, 오서산타령, 금상열이나, 장타령에 이어 제직이타령·통타령·고리타령·귀타령·동타령으로 길게 말잇기를 하는 긴 각설이의 존재와, 걸망·건두레와 같은 용어적 특색, 오천면 소속 섬들의 여러 가지 독특한 민요권 형성, 특히 등불씨기노래와 같은 개성있는 민요를 탄생시킨 것은 바다에 면한 충남 서남부민요 중에서도 보령민요로서의 뚜렷한 위치를 드러낸다 하겠다.

3. 보령의 일노래

1) 모심는 소리

보령지역의 모심는소리는 상사류에 속한다. 주교면 신대리 목리(유세열 대담), 주포면 관산리 및 청라면 황룡2리 송중 마을처럼 모심는소리를 하지 않은 마을들도 있다. 천북면에서는 홍성군 결성방면이 문화중심인 곽상사류가 나온다. 그밖의 지역에서도 곽상사의 영향을 조금 찾을 수 있다.

미산면 내평리에서는 동부 홍성군의 긴사지류(하지소리)와 서천형 모심는소리의 흔적이 미약하나마 결합된 듯한 예가 나온다. 농부가형 상사에 가까운 긴상사도 녹음되고, 잦은 상사류들도 수집된다. 모심는소리에 있어서 부여군·서천군보다 서부 홍성군 방면으로 부터의 영향이 많은 데는, 부여형 상사나 서천형 모심는소리가 곽상사보다 유장하여 부르기 쉽지 않은 탓도 있어 보인다.

보령지방의 모심는소리와 그 받음구 예는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의 <보령>은 『보령의 민요』(앞의책)에 게재된 악보 번호이다.

〈표 1〉 보령지방 모심는 소리의 받음구 예

<보령>	지 역	가창자	받음구 예	비 고
<3>	미산면 내평리	김동휘 (1921년생)	사~,사아아-양사-, 디여--이 요-, 사/ (상,사아디여 허허어)	*메김구:4음보씩 (단.시작에 입말첨가예 있음). M2.v1,4,6,7.t4.
<4>	"	김창환 (1909년생)	에에-,에에야-아, 하,하아--이 요 -	*긴사지류.*중산간마을. *메김구:(허허-어이)+7음보 (3~5자구성).M2.v1,6,7. +(라) 미라'시'.v1.t4.
<5>	천북면 궁포리	정진옥 등	어럴 뽀뽀 사양사 리, 에 헤,어이 여루 상 사 리 여	*곽상사류.*메김구:4음보씩 (1음보는 4~8자). Y2.v1,4,8.t4.
<6>	청소면 진죽리	박임동 (1912생)	어 허이여러 여러 루, 상 사 디 여	*긴상사.*(반)출현음:솔도레 (미)솔'라'.v1,4,5,8,9.t4.
<7>	주산면 화평리 (약현)	백찬기	헤이 헤,헤이 여라 사양 사 뒤 허	*긴상사.*S2.v1,4,6.t4.
<8>	청라면 의평리	김재구, 이장훈등	에,헤이 헤이, 이여루 상 사 디 허	*긴상사. *참고용.
<9①>	청라면 소양리	함봉산, 이규은	에이 이 어라-	*참고용.M4.v1.
<9②>	"		어러힐 러얼릴 사양사 디여	*찾은상사. (반):M3.t6.

<10①>	대천동	임창빈	어 허이 허이 여루 상 사하 디 여	*긴상사.*참고용. L4.v1,3,4,5.t1.
<10②>			어럴 러럴 상사 디야	*짚은상사.솔도레.v5.t4.
<11>	오천면 장고도	편무안	얼 러럴 상사 리야	*짚은상사.(메):2음보씩 (1음보=2~6자).S2.v1,4.t4.
<12>	웅천읍 노천리	이행인	어럴 러럴 상사 디야	*짚은상사.(밭):미라.t1.
	웅천읍 노천리 (사천)	박용기	어러러러 상사데, 상사데 상사데 어허러러러 상사데	*짚은상사류 (참고 ; 결성형상사)
<13>	남포면 달산리	박창신	얼,러러러 상사 디야	*짚은상사. (밭):도미.v1,3.t1.
<14①>	미산면 내평리 (1977-주산면 화평리 약현)	김동홍 (1927년생)	어 허이,어이여루, 상 사, 뒤 여	*농부가류. (밭):라시도레미.v:라도미.t:라.

(1) 겹상사류 및 그 흔적

<보령 5>는 천북면 궁포리(弓浦里)의 모심는소리로 겹상사류에 속한다. 겹상사류의 문화중심은 홍성군의 결성 방면이다. 궁포리는 본래 홍주군 지역인데, 충청수영이 폐지되고 그곳에 오천군이 신설되면서 고종 광무5년(1901년), 오천군 천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천궁리(川弓里)의 弓과 삽포동(插浦洞)의 浦를 따서 ‘궁포리’로 하여 보령군 천북면에 소속되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결성농요’의 받음구 예는 “어러얼 러러러 상사리, 어러얼 러러러 상사리, 헤 헤 헤헤 여루 상 사 리 여”이며 그 선율은 3분박4박 4마디로 불린다(이소라, 『홍성의 노동요』 홍성문화원, 1994. 42쪽, 53쪽). 이에 비해 <보령 5>의 그것은 “어럴 러러러 상사리, 예 헤, 어이 여루 상 사 리 여”로서, 첫마디를 반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선율은 3분박4박 3마디로 축소되었다.

<보령 10①, 10②>는 대천5동 임창빈(1917. 남. 옛 남곡1동 탑골 토민) 창이다. <10①>은 겹상사 류의 후반부를 연상시킨다. <10②>는 겹상사 류의 첫마디에 비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녹음테이프 素90-1-31B에선 느린상사(<10①>에 해당)를 더 느리게 불러 긴 사지류(후술 참조)에 가깝게 가창하는 것을 보면 선율이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웅천읍 노천리 사천마을의 박용기(1918.청원군 오창면 출생. 21세경에 사천 이주) 창에서도 겹상사류의 흔적이 보인다.

(2) 기타

<보령 4>는 미산면 내평리의 김창환 창이다. <4>의 받음소리 첫행은 ‘서천형’모심는 소리의 받음소리 첫 행(『보령의 민요』 앞의 책. 43쪽<보례 2> 참조)에, <4>의 받음소리 끝 행은 동부 홍성군에서 불리는 모심는 하지소리(긴사지소리; 『보령의 민요』 앞의 책. 44쪽 <보례 3> 참조)와 어울리는 바가 있다.

‘서천형’모심는 소리는 ‘에헤야’와 같은 입말 뒤를 ‘사해가 네로구나’라는 유로 여밈을 받음구의 특징으로 하며, 전국에서도 서천군과 그 인접지역인 부여군 옥산면에만 전파되어 있다. 그 문화중심(cultural center)은 서천군이다. 미산면은 부여군 옥산면과 서천군 판교면(서천형 모심는소리 전파권에 속한다)에 인접해 있는데도 그 영향이 미약하다.

청라면 의평1리에서 수집한 모심는소리<보령 8>는 그 받음구가 긴상사류이긴 하나, 덜 고정되어 있다. 김재구는 처음엔 논땀소리 한다면 “에이여라 상사디여” 또는 “에이여루 상사디여”라고 받음구를 소리내었었다.

미산면 내평리 출신의 김동홍 창<보령 14①>은 농부가형 상사가 참고되나, ‘농부가형 상사’에서와 같은 ‘상’보다 ‘사’를 낮추어 내면서 굵게 요성하는 특징은 나타나 지 않는다.

<보령 3>은 미산면 내평리 김동휘 창의 긴상사이다. 첫 받음소리에서는 “사~, 사아아-양사-, 디여--이 요-, 사”로 불러 길게 뻗는 ‘사-’의 등장이 눈여겨졌는데, 두 번째 받음구 예에서는 “상, 사아 디여 허-허어”로 가창하여 그러한 특색이 없다.

청소면 진죽리의 <보령 6>과 주산면 화평리의 <보령 7>도 긴상사 형이다. 주산면의 방언권은 서천군이라고 하며, 하느라고→하나라구, 비까지 오네→비알래 오네, 물먹을래→물주래를 그 예로 든다(1991년도 『보령군지』 참조).

서천군엔 달구질소리가 전하질 않는데, 주산면에서도 그러하다. 미산면 내평리에 서천형 모심는소리의 흔적을 미약하나마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보령 7>의 받음소리 전반부를 서천형 모심는소리의 흔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보인다.

<보령 9①>은 청라면 소양리에서 모심는 소리의 예로 녹음된 것이나 받음구가 “에이 이 어라”로 종료된 것인지 또는 절반만 가창된 것인지 불분명한 바가 있다.

<보령 9②,11~13>은 잦은 상사류의 모심는 소리이다.

<보령 11>은 장고도의 것으로 (메)와 (반)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에 해당한다. 북이나 장구의 반주없이 못줄잡은 이가 메기곤 했다 한다. 받음구에서 일반적인 상사 ‘디’야 대신에 겹상사류에서 흔히 보는 상사‘리’야로 가창하는 점이 눈에 띈다.

2) 논맴 소리

보령지방의 논맴소리에는 얼카덩어리류(긴소리, 순수 잣은소리), 궁포리 산요, 노천 만물소리, 먼들소리, 술미소리 및 상사류가 있다.

황영수(1934.남.남포면 창동1리 토민)는 초벌매기 때에 “위-”하고 소리치며 두벌매기 예선 “엉차 덩어리”를 부른다. 저녁때가 되어 일이 급할 때는 상쇠잡이가 “저건너 갈미봉에 비뿔어 들온다. 우장 두루고 논매세, 어서 어서 매라”하면서 잣은 마치로 들어간다. 만물은 두레가 안 서고 호미로 두벌 맬 때만 두레가 섰다. 이때는 논매기꾼이 많으니까 발자국으로 매어진다고 하였다.

(1) 얼카덩어리류

얼카덩어리 류는 충남을 대표하는 논맴소리로서, 그 문화중심은 홍성·서산·당진과 같은 서북부 충남지방이다. 얼카덩어리류는 남쪽으로는 보령지방을 전파권의 끝으로 하고, 주로 북쪽과 동쪽으로 전해져 가서 서천군을 제외한 충남 일대 및 한강 이남의 경기도에 전파되어 있다.

부여군은 그 전파의 한계지역에 속한다. 부여군과 서천군에 인접한 동남부 보령지방에서는 수집되지 않았다. 문화중심지대에서는 호미로 논김맬 때의 긴 얼카덩어리와 이어서 부르는 순수 잣은 얼카덩이가 함께 불리는데, 보령지방엔 긴 얼카덩어리와 군말이 붙지 않는 잣은 얼카덩어리가 전파되어 있다.

녹음지역은 <표 2>와 같다. 동남부인 성주면·미산면·주산면을 제외한 읍면에서 수집되었다.

남포면 달산리의 박창신은 10여 명이 품앗이할 때에 에엌싸면서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를 불렀다. 두레가 나면(7,80명) 기물치고 소임이 어디로 돌아라 하고 지시한다. 에엌쌀 무렵에 선소리꾼이 “어여차 - ”하면 다른 논매기꾼들이 “어거여차-”하고 외친다고 하였다.

미산면 내평리(김창환 ; 1909. 토민)와 청라면 의평1리 갯밭에서와 같이 논맬 때 얼카덩어리를 부르지 않았음이 확인된 곳도 있다.

<표 2>보령지방 얼카덩어리류의 녹음지역

<보령>	지 역	가창자	받음구 예	비 고
<14②>	미산면	김동홍	올카 덩이나	*참고용.
<15>	청라면 황룡2	박성진	얼카 덩어리	D2.v1.t3g.(밭):6/8박1마디.

		등		(메).12/8박1마디.(2음보씩.1음보=2~8자)
<16>	청소면 재정리	김인구 김중현	①얼카 더엉어리	*긴소리.D3(t3)+M2.
			②얼카 덩어리	*짧은소리.(받):도미.t3.
<17①>	남곡1동 탑골	김관제	어혈카 덩어리어	(받):12/8박1마디/솔도레.v1.t4. (메):12/8박1마디/(2음보씩.1음보=4~6자)/솔도 레솔'라'.
<17②>	남곡2동 황골	임창빈	얼카 덩어리야	*호무질./미라.t4.
<18>	천북면 궁포리	정진옥	얼카 덩어리	M2+S3.t4./(메):2음보씩.1음보=4~5자)
<19>	오천면 소성2.	최은철	얼카 덩이야	*호미.
<20①>	주포면 관산리	최연순, 최기용 등	얼카 덩어리	(메)(받):6/8박1마디씩.(1음보씩.1음보=3~6 자).S2+D3.v1.t4g/t6g. *끝에 “위 - ”.
<21①>	오천면 장고도	편무안	얼과 덩이야	(받):6/8박1마디씩. (메):12/8박1마디.(2음보씩.1음보=4~6 자).S2.v1.t1.
<22①>	주교면 신대리	유세열	어혈카 덩어리	(받):6/4박1마디.D3.t3g. (메):2음보씩(1음보=4~8자)
<23②>	청소면 진죽리	박임동	얼카 덩어리	*에염쌀때도 부른다.
<24①>	청라면 소양리	이규은	얼카 덩어리	(받):6/8박1마디씩. (메):6/8박2마디씩.(2음보씩.1음보=5~8 자).S2.v1.t1
	청라면 장산리	조석연	얼카덩어리.	*호무질
	청라면 장현2	이영재	얼카덩어리	*자진가락
<25①>	웅천읍 노천리	이행인	얼카 덩이야	(메),(받):6/8박1마디. (메):1음보(5자).M3.t4.
	남포면 달산리	박창신	얼카덩어리	
	남포면 창동1	황영수	영차 덩어리	

얼카덩어리류는 충남을 대표하는 논뿔소리로서, 그 문화중심(cultural center)은 홍성·서산·당진과 같은 서북부 충남지방이다. 얼카덩어리류는 서천군을 제외한 충남 일대 및 한강 이남의 경기도인 수원시의 수암면·고색동, 오산시, 화성시의 남양동·마도면·매송면·비봉면·서신면·송산면·우정면·정남면·태안읍·팔탄면, 안산시 본오동, 평택시의 오성면·고덕면·서탄면·진위면·청북면·포승면·현덕면, 안성시의 공도면·금광면·대덕면·미양면·삼죽면·서운면·원곡면, 용인시의 구성면·기흥읍·남사면·이동면, 이천시 신둔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충북(음성군에는 얼카덩어리의 영향을 받은 잘하네 형인 “잘하네 못하네 얼카산이가 잘하네”가 있다)에선 잘 발견되지 않으며, 전북지방엔 전해지지 않는다.

충남의 문화중심 지대에서는 호미로 논김멜 때의 긴 얼카덩어리와 이어서 부르는, 군말이 붙지 않는 순수 잣은 얼카덩이가 함께 불리지만, 청양군·아산시·공주시 쪽으로 오면 “얼카덩어리 잘넘어간다”와 같은 군말이 붙는 파생형의 잣은소리가 불린다. 부여군은 이미 그 전파의 한계 지역에 속한다. 금산군이나 천안시에 이르면 잣은 형태인 얼카산이야(금산)나 얼카랭이야(천안)가 주로 불리며, 논산, 공주, 연기군 및 대전광역시에서도 얼카산이야가 발견된다.

따라서 얼카덩어리는 남쪽으로는 보령지방을 전파의 끝으로 하고, 주로 북쪽과 동쪽으로 전해져 잣음을 볼 수 있으며, 동남부 보령지방에서 수집되지 않은 바가 이해된다.

(2) 궁포리 ‘산요’ 곡

천북면 궁포리 정진옥 창<보령 27>의 ‘산요’곡은 궁포리에서 손으로 논지심을 훑치는 만두레 때에 불리었다. 한패가 의미구+입말의 구조인 A를 부르면 다른 한 패가 동일한 구조인 B를 불러나간다. A와 B는 서로 동류의 곡이다. 곡명은 결성농요(충남 무형문화재 제20호)의 논맴소리인 산여소리와 유관하다.

궁포리의 모심는소리가 결성농요의 겹상사 형에 속하고 결성농요의 여러 가지 논맴소리 곡의 이름 중에 산여소리와 에염쌀 때의 ‘몸돌산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곡은 아니지만 이들이(이소라, 『홍성의 노동요』 홍성문화원, 1994. 45, 48, 62, 65쪽) 참고된다.

<보령 27>의 A : 오성-산-, 제-일-,봉-에, 금자-, 헤-이, 동으로 둘러있고,
이히, 이-히히히 히이 여-어

<보령 27>의 B : 해당-화-야, 해다-항, 화-야, 제에앵네-, 헤-이이 다들어
보호고,
위-,위--위-이 여-아

결성농요 산여 : 반이나 - 넘어 - 이-여-, 늪-어, 늪어 - 허,
어이-여 -, 늪-어-헤, 에-헤
(좋다 - , 얼씨구 절씨구, 패랭이 꼭지에, 지화를 꿇고,
해오라기 춤을 너울 너우울 춘다 - , 에헤)

몸 돌 산 여 : 이-히 헤- 헤-, 오동복판 거문고는, 줄만 굴러두, 소리가
나---나온다- 흐허허, 에- 헤

(3) 노천 만물소리

이는 웅천읍 노천리에서 만물매기 때에 불렀던 맥받형식의 소리이다. <보령 25③>은 이행인(1919년생. 노천리 토민) 창이고, <보령 26>은 김현건(1931년생. 노천리토민) 창이다. 받음구 예는 <25③>이 “에 헤 에에 에에야, 에에- 에 에으, 이야-, 어어으,노을고”이고, <26>은 “에-헤 헤에헤에 헤에헤이야 - , 에이여- 허-허, 에허이-히 이여- 허어-, 어허 허- 허어- 허이, 놀고호오 놀세-”이다. 긴 입말 뒤에 ‘놀고’ 또는 ‘놀고놀세’로 여밈이 인상적이다. 메김구 예는 <25③>이 “육칠월이 <호>박 녕출은 녕출녕출한데, 베두 그와같이 좀 잘좀 되게 해줍소사”이고, <26>은 “열락 서산에-헤이, 해가지고-호, 단풍 서산에- 해다 오네-헤”이다. 가사 붙임이 촘촘한 편이다. 무반음전음계(無半音全音階)의 술선법(S1쫓대)에 속하며, 쫓대음에서 종지(t1)하는 예가 있다.

(4) 먼들소리

먼들소리는 논매기가 끝날 즈음 에염을 싸고 마칠 때에, 또는 모서리를 돌아갈 때 한마디 유장하게 외치던 소리이다. 남곡동 탑골과 주포면 관산리, 청라면 소양리, 웅천읍 노천리 및 미산면 내평리에서 녹음되었다.

탑골의 임창빈은 거의 다 매어 논매기꾼들이 뺑 둘러쌌을 때 일단 한번 일어섰다가 엎드리면서 “웅굴 이어 - ”<보령 17③>를 외치며, “위 - ”하고 일어선다고 하였다.

미산면 내평리에서는 에염을 싸고 마칠 때에 “위 - 요 - 호호”<보령 28①>하고 한마디 외치고는 논밖으로 나갔으며, 논매기꾼들이 일렬로 서서 모서리를 돌아갈 때 “에위 요오 호호”<보령 28②> 라고 한번 외쳤었다.

‘먼들소리’라는 곡명은 에염을 썬다는 형상을 가리키는 서부 경기도의 ‘몸돌소리’에 관련되나 서로 별개의 곡이다. 메김구가 없이 주로 입말의 어휘를 가지고 유장하게 한마디 외치는 보령지방의 먼들소리는 서천지방의 먼들소리 또는, 부여군의 가장 보편적인 논맴소리이며 ‘위여-’로 말문을 여는 ‘웅골소리’와 유사하다.

보령지방의 먼들소리는 술선법(S) 계열을 선호한다.

(5) 술미소리

술미소리는 오천면 장고도에서 녹음된, 손질할 때의 논맴소리이다. 맥받형식이며 그 받음구 예는 “어아 술미야”이다. 메김구는 일을 잘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매었다고 격려·고무시키는 내용이다. 술선법 계열(S2)이며 기음종지(t1)한다.

홍성군의 결성면 교항리, 서부면 어사리와 광리, 갈산면 동성리와 같은 바다가 가까운 마을에서도 만물매기 때에 불리는 술미류가 수집된다.

이는 어로요 중의 술배류(소흑산도와 서천군의 고기 찌는소리, 거문도의 밧줄끄는 소리 등)와 연관된다.

(6) 기타

짚은 상사류를 논맬 때에 원용하는 예(주교면 신대리, 청소면 진죽리)가 있다.

3) 귀가길 소리

청라면 의평리 갬밭 마을에서 논맬 후 귀가 길에 풍물을 울리며 “에 헤라 종와 종와”를 받음구로 불렀던 종와소리<보령 29>가 수집된다. 홍성군엔 장곡면 옥계리의 “워 놀이나 종와 종종” 등 종혜류의 장원질소리가 있고, 천안시엔 ‘종다루’, 연기군엔 ‘종달오’, 공주시엔 ‘중화’, 고창군엔 ‘종혜’류의 귀가길소리가 있다. 의평리엔 이곳 석탄광산에 왔다가 폐광과 함께 정착한 사람들이 상당수 살고 있다.

4) 바심 소리

(1) 개상질 소리

벼 수확요(收穫謠)는 전국에서도 중서부 충남지방이 가장 다양한 작업의, 우수한 거둬소리들이 발달되어 있다. 보령에서는 나부질(나비질; 곡식에 섞인 검부러기나 티끌들을 날려보내기 위해 키로 나비 날개치듯 바람을 내는 짓)소리나 죽가래질소리 등은 잘 찾아지질 않지만 벼바심소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수집된다. 이는 충남 벼바심소리 문화 중심 지대에 밀접해 있음을 나타낸다.

남포면 달산리<보령 33>에서는 개상질(벼바심) 할 때, 12명 또는 10명이 두 명씩 짝을 맞추어 옆으로 누어놓은 절구통의 양편에 마주보고 서므로 열 명이 개상질 할 경우 절구통 다섯 개가 필요했다. 처음에 “왔나” “어-이”하여 준비 태세를 취하고는 벗단을 두 번 내려친 다음부터 노래한다.

그 밖에 주포면 관산리<보령 30>, 청라면 장현2리 명대<보령 31>와 황룡2리 송중<보령 35>, 미산면 풍산리<보령 32>와 풍계리<보령 34>, 남포면 달산리<보령 33>, 청소면 진죽리<보령 36①>에서 벼바심소리를 녹음하였다.

그 밖에, 미산면 내평리의 김동식은 1940년대엔 도구통 놓고 1통에 3인씩 서서 바심 소리 하였다고 했으나 재현하지는 못하였다. 내평리 출신인 김동홍(1927년생. 1977년경에 주산면 이주. 주산면 화평리 약현 거주)은 “에헤이” “에헤이” -- 한다는 정도로만 바심 소리의 예를 들었다. 남포면 창동1리에서도 벼바심소리를 했다고 한다(황영수 ; 1934년생. 남. 토민). 오천면 장고도 토민인 편무안(1938년생)은 벼바심 때 나무절구통 얹어놓고 벗단을 내려치지만, 노래하는 사람은 못 보았다고 하였다.

오천면 소성2리의 최은철은 왜정 때 일본에 가 있는 등, 이리저리 다니느라 벼타작소리를 모른다고 하였다. 남곡1동 토민인 김관제(1940년생)는 개상질을 했었지만 노래는 모른다고 하였다.

<표 3> 충남의 벼바심소리 이념형

(선소리꾼) : 들왔나 -
(바심꾼) : 어-이
(선소리꾼) : 어야 헤
(바심꾼) : 어야 헤
(선소리꾼) : 꾸불통 꾸불통
(바심꾼) : 어야 헤
(선소리꾼) : 저남산 보아라
(바심꾼) : 어야 헤
(선소리꾼) : 우리도 늙으면 / 저모양 되리라
(다함께) : 헤 헤 / 허 이 / 헤헤 야 / 헤 이 / 나 헤

보령지방의 벼바심소리<보령 30~36①>를 이념 형<표 3>과 대조해 보면, <33>의 두 번째 가창에서만 이념 형에 가깝게 메김구를 1마디 형에 이어 2마디 형을 부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메김구를 1마디 형으로만<31, 32, 34, 36①> 부르든지 또는 2마디 형으로만<30, 33①, 35> 부른다.

1마디 받음구 예는 “에야 헤”<30②, 31, 33①, 35>, “헤야 헤”<33②>, “에야 헤야”<34>, “허허 헤”<30①>, “에야 허이”<32②> 등으로 “에야 헤”의 비중이 높다. 긴 후렴구의 예는 “헤 여와/어 어,에야 헤,/어 디여/나가 세”<30>, “에 헤야/ 어허 행,/ 어허 헤에,/ 에헤 이여라/ 나가 세”<31>, “어허어허 디여허/ 나흐은 행-”<32①>, “헤 헤,/헤야 헤,/ 오 디여/ 나흐 헤”<33>, “헤 헤야/ 에헤 헤/ 에헤야 헤야/ 에헤,위여어라/ 나 헤”<34> 이다.

청라면 황룡리 송중<보령 35>에서는 긴 후렴구를 쓰지 않으며, 다 떨군 벼몽덩이를 던지는 동작은 “고만저만 나가보세”와 같은 메김구로서 지시한다.

보령의 벼바심소리는 충남의 이념 형(3분박2박 1마디의 받음소리와 긴 후렴구/1마디와 2마디 메김구의 공존)에 해당하는 예가 없진 않지만 1마디와 2마디의 메김구를 공존 시키기보다 분리하여 1마디 메김구로만 가창하든지 또는 2마디 메김구로만 가창하는 경향이였다. 대개는 긴 후렴구로 매듭을 짓지만, 청라면 황룡리 송중마을에서는 1마디 받음소리로 일관한다.

(2) 도리깨질소리

도리깨로 보리바심을 할 때나 또는 절구통 개상에 벼바심을 한 뒤에 도리깨로 뒷마 무리할 때는 “으헤”라고 외친다는 예(청소면 진죽리 박임동 제보)가 있었다.

5) 터다짐 소리

집터나 못터를 다질 때, 또는 다리를 놓기 위해 말 박을 때 하던 소리로는 차류(받음구 예; 어여라 차)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밖에 상사류와 달고류가 나왔다. 음조식은 도선법계, 술선법계 및 육자배기선법 계통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집터다짐은 무거운 돌에 동앗줄을 여러 가닥 동여맨 지경돌로 다지지만, 오천면 장고도에서처럼 나무절구통으로 양쪽에서 들고 다졌던 예도 있다.

집터나 못터 다질 때의 터다짐소리의 전국적인 유형으로는 차류·상사류·지경류·지점류·지정류·망깨류·달고류 등이 있다. 차류와 망깨류는 경상도가 본고장이며, 상사류는 전라도가 그 문화중심에 있다. 지경류의 출처지는 경기도이며, 지점류의 그것은 충북지방이다.

지정류는 황해도나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잘 수집된다. 달고류는 회다질 때의 소리를 유용한 것으로 여러 지방에서 이따금 발견된다. 이웃인 부여군과 서천군엔 상사류도 없진 않지만 차류가 지배적이며, 홍성군은 차류·상사류와 함께 지점류도 공존한다.

6) 흙올리기, 가래질 소리

오천면 장고도에서 집지을 때 지붕으로 흙을 올리며 하던 흙올리기소리는 드문 노래이며, 받음구 예는 “어야 바디기야”이다. 메김구는 잘 전달하고 잘 받으라는 작업에 관한 내용들이다. 음조식은 술선법 계통(S2.t4.)이다.

흙가래질소리나 고기 퍼실는 가래질소리나 모두 가래류임은 동일하다.

보령지방에선 비(非)낭청형이 대부분이지만, 낭청형(받음구 예; “에-,에나양 처영 가래로세”)도 발견된다.

7) 콩밭매기, 길쌈노래 등

(1) 콩밭매기

청라면 소양리의 함봉산(1924년생.남.토민)은 논매기를 마친 저녁에 콩밭을 매며 <보령 37>을 부르곤 했다. <37>엔 강원도어러리 곡풍이 들어 있는 바, “아리 랑 - 아리 랑, / 아 라 리 요 - 호, / 아리 랑 -, 어리 시구 서, / 노다 가다나 가 세 -,”는 그 후렴 부분(받)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7>의 (받)은 3분박6박 4마디로 구성되었으며, 도선법(D4.v1,3.t1.)에 속한다.

(받)의 뒷부분 가사는 1921년 2월 이상준 편집의 『신찬 속곡집』에 실린 ‘강원도 아리랑’ 후렴의 후반(아리랑 얼씨구 노다노다 가게)이나, 1912년에 실시한 조선총독부 수집의 아리랑 후렴구 중 임동권 정리번호 394 아이농타령의 후반(아이농 얼시고 노다가소), 정리번호 820 아르령타령의 후반(아르령 어혈사 노다가세)과 가깝다.

문헌에 나타나는 아리랑 후렴의 후반부를 보면, 1896년경의 ‘아라릉 얼사 배띠어라’보다 1912년 경엔 ‘아르랑 얼시고 아라리야류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아라리야’ 대신에 ‘노다가세’로 바꾸는 예들이 나타난다. 1914~1916년간은 초창기의 배띠여라와 노다가세를 결합한 형인 ‘아르랑 띄여라 노다가세’류가 지배적이 된다. 1921, 1926년경에 비로소 아리랑고개라는 ‘고개’류가 등장한다(이소라, 『정선민요론』 정선문화원, 2005년 10월. 47쪽). 그러므로 <37>(받)의 후반부는 오늘날의 ‘고개’형보다 오래된 형으로 1912경에서 1914년 이전에 나타나는 형태가 전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37>의 메김 부분의 가사는 논두렁 밑이나 밭두렁 밑에 심어둔 콩밭에 어김없이 돌아난 잡풀을 뽑아내야 하는 신세임을 표현한다.

(2) 길쌈노래

길쌈노래로는 강원도어러리류<보령 38>와 신세타령 조<보령 39①>가 수집되었다.

<38>은 청라면 황룡리의 박성진(1934.남.토민) 창이다. 고개 형의 강원도어러리 후렴 부분에 속한다. 삼 삼는 노래로서 강원도어러리 곡풍이 불린 예는 홍성군(이소라, 『홍성의 노동요』 앞의 책. 119쪽)에서도 나온다. 삼 삼을 재료를 장사꾼들이 강원도에서 많이 조달해 온 관계로 그러한 듯하다.

<39①>은 서천군 문산면에서 출생하였고, 15세에 성주면 개화1리로 시집온 김주천(1915년생) 창이다. 모시로 베를 짜서는 우리집 영감의 모시옷을 곱게 해 입힌다는 내용이다.

저산팔읍은 조선조에 모시를 중심으로 저산팔구(苧産八區 ; 한산, 서천, 비인, 남포/홍산, 정산, 부여, 임천)의 보부상들이 형성한 유통시장권으로 남포는 현 보령시 지역이며, 한산·서천·비인은 서천군, 정산은 청양군, 홍산·부여·임천은 부여군 지역이다.

저산팔읍 예찬가가 화자되는데, 남포 부분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저산팔구 상무사(商務社)는 1845년에 창설되고 1963년엔 홍산 처소의 영위(領位)인 김재련을 중심으로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1978년까지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한다(황의천, 「개항기 보부상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연구」(석사논문). 1992. 23쪽.).

“화초섞여 나린 물이 / 남포(藍浦)바다 되었는데 /
천수 만과 나린 물이 / 골마다 서천(舒川)하니 /
에헤야 헤야 에헤야 헤야 / 에헤야 헤야 에헤야 헤야 /
에헤야 헤야 에헤야 헤야”

(3) 물품기, 소부림말, 목도소리 등

① 물품는 소리들은 맞두레나 용두레로 가뭍에 물을 퍼올리면서, 예를 들어 500두레하고 교대로 품기 위해 수를 세던 것으로 남곡1동에서도 “하나 둘…”하고 수를 세면서 고레박질을 하였다(김관제). 청라면 황룡2리에서는 용두레로 두레박질을 하였다.

② 보령지방은 호리소 지대이다. 주교면 신대리의 유세열과 주교면 옹포리의 최창용은 소 한 마리로 논밭갈이를 하면서 소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할 때는 “이라!”, 오른쪽으로는 “이라 이라 이라”, 왼쪽으로는 “찌찌 찌찌”, 뒤로는 “무라 무라”, 서게 할 때는 “와 - ” 하였다.

청라면 황룡2리에서는 앞으로 가게 할 때에 “이라!”, 오른쪽으로는 “이리로”, 왼쪽으로는 “찌찌”, 뒤로는 “뭍라”, 서게 할 때는 “워 - ”한다.

오천면 장고도의 편무안은 앞으로 가게 할 때는 “이라”, 오른쪽으로는 말없이 고삐를 잡아당긴다, 왼쪽으로는 “찌찌 찌찌”, 뒤로는 “무라”, 서게 할 때 또는 조심하라는 의미로는 “와 와- ”한다.

③ 목도소리는 통민요적이다. 웅천읍 노천리의 박용기는 “어여차, 어여 어여허 허 어야 어여허 놓고”하며 목도소리를 불렀다. 이는 처음에 ‘어여차-’하고 목도로 무거운 짐을

올러매는 부분과 2분박의 리듬에 맞춰 ‘어어’하고 걷는 부분 및 목적지에 도달하여 ‘놓고-’라는 지시와 함께 목도를 어깨에서 내려놓는 3부분으로 구성되는 일반형에 속한다. 경북궁 재건 등 부역에 전국적으로 동원되어서인지 목도소리는 통민요적이다.

④ 나무꾼소리로는 청춘가 등을 잘 불렀다(오천면 장고도의 편무안).

8) 어로요

어로요가 다양하게 풍부히 전승함은 보령민요의 한 특징이다. 어로요는 모두 오천면의 섬지방에서 녹음되었다. 대천5동의 임창빈은 바다가 가까운 동네지만 어로요는 모른다고 하였다.

녹도에서는 주목망 어로요, 짚줄꼬는소리, 줄사리는소리, 조기 주낙배 노젓는소리와 배치기 노래를, 장고도에서는 배치기노래와 굴따며 하던 노래를, 삼시도에서는 배치기와 갈치잡이 노래를 녹취하였다. 그 밖에 문화방송국이 취재한 갈치낚는 소리, 배 미는 소리, 배 올리는 소리에 대하여도 새로 채보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이들 중에서 갈치낚는 소리와 굴 따며 하던 소리를 제외하면 모두 맥반형식에 포함된다. 메김소리(메)와 받음소리(받)가 기본적으로 3분박2박 1마디씩인 곡은 영취 류의 주목망 노젓는 소리와 빨리 퍼담는 소리, 말장의 돌들을 줄러매는 소리, 돌들을 전달하는 소리이며, 3분박4박 1마디씩인 곡은 호롱감는 소리. 그물을 끌어올림소리, 줄꼬던 소리 및 줄사리는 소리이다.

비(非)낭청형 가래소리는 3분박6박 1마디 씩이며, 배밀던 소리와 배올리는 소리 및 갈치낚는 소리는 비고정(非固定)장단 곡이다.

받음소리에 비해 메김소리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예는 어로요의 한 특징인데, 영취 류의 주목망 노젓는소리, 호롱감는 소리, 비(非)낭청형 가래, 빨리 퍼담는소리, 줄꼬는 소리, 말장의 돌들을 줄러매는 소리, 돌들을 전달하는 소리, 배미던 소리 및 배올리기 소리에서 그러했다. 음조적으로는 미선법(M)계통과 솔선법(S)계통이 보이며, Y2(육자배기 선법 계통)선법도 약하게나마 섞여 있다.

(1) 녹도의 주목망 어로요

녹도(鹿島)에서는 예전에 주목망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안강망(鮫鱧網; 어선이 어장에 이르러 닳을 내리고 원추형의 길다란 낭망(囊網)을 해저에 설치함)과 유망(流網)의 보급에 따라 주목망은 쇠퇴하였는데, 고대도엔 오늘날에도 주목망이 있다(이규인).

주목망(柱木網)은 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닳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채래식 어망이다.

바다속에 나무기둥(柱木)을 세워가지고 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망구(網口)를 회전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간조 시뿐만 아니라 만조 시에도 어류를 잡을 수 있다. 어망은 큰 것은 약 60m에 이르렀고, 지주의 길이도 약 20m에 달하였다.

1통(統)당 중사 어부는 14명 내지 16명이 필요함이 일반이지만(박구병, 『韓國水産業史』 태화출판사, 1966), 녹도나 삼시도에서는 돌을 신는 주걱배에 7명, 줄을 신는 작은 배(삼시도의 김연중은 이를 상고선이라 일컬었다)에 3인 해서 10명 정도가 조업을 했다.

- ① 노젓는 소리 ; 조기를 잡기 위해 주목망 설치한 곳으로 갈 때의 노젓는 소리<보령 45①>의 받음구 예는 “엉쳐”이다. 선소리꾼은 “어여쳐” “엉쳐”하며 받음소리처럼 3분박2박 1마디로 가창하기도 하고 “어야 디야차- 어영어어-”을 4마디에 걸쳐 소리하기도 한다. 선소리꾼의 메김소리가 길어지더라도 받음소리꾼들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짝수마디마다 “엉쳐”를 소리낸다.
- ② 그물당길 때 호롱감는 소리 ; 호롱감는 소리<보령 45②>의 받음구 예는 “어야차 디어”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되 메김소리는 더 길어져 받음소리와 겹쳐내어지기도 한다.
- ③ 가래소리 ; 고기를 산대(대나 쇠로 만든 장대에다 세모 또는 둥근 모양의 그물 주머니를 붙인 것으로 그물 속에 담긴 물고기를 꺼내는 도구)로 퍼실으며 부르는 가래소리<보령 45③>의 받음구 예는 “어여야 가래야”로 비(非)낭청 형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6박 1마디씩이되 메김소리는 더 길어져 받음소리와 겹쳐내어지기도 한다. 가래류는 동해안, 남해안 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부지역(당진 · 홍성 · 서천군 앞바다, 보령시 녹도, 부안군 위도 등)에서도 불리어져, 고기퍼담는 소리 중에서는 전파범위가 가장 넓다.
- ④ 고기 퍼담는 소리 ; 그물 속의 고기를 배 위로 빨리 퍼담을 때 소리<보령 45④>의 받음구 예는 “어이 수나”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2박 1마디씩이되 메김소리는 더 길어져 받음소리와 겹쳐내어지기도 한다.
- ⑤ 그물 끌어올리는 소리 ; 주목망의 그물을 뜯어다 배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 때에 외치는 소리<보령 45⑤>의 받음구 예는 “어자 어이자 어이저 자”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음조식은 미선법계통(M3.v4.t4.)이다.

(2) 조기 주낙배 노젓는소리

조기 주낙배 노젓는소리<보령 47②>가 녹도에서 수집되었다. 조기 주낙배는 조그마하다. 받음구 예는 “씩여 라-”이다.

(3) 짚줄 꼬는 소리, 줄 사리는 소리

① 짚줄꼬는소리 ; 오천면 녹도에서는 육지에서 사온 벗짚 네 가닥을 합친다음 16개씩 한데 꼬으면서 <보령 46>을 가창하였다.

받음구 예는 “어여디여” 또는 “어 여차 디 여”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되 메김소리는 더 길어져 받음소리와 겹쳐지기도 한다.

② 줄사리는소리 ; 녹도에서 꼬은 줄을 정리해 두기 위해 사리면서 하는 소리<보령 47①>의 받음구 예는 “어여 디여”이다. 위의 짚줄꼬는 소리와 비슷하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4) 삼시도의 주걱배 갈치잡이

삼시도의 장골은 2002년 10월 현재 150호 중 농가가 30%, 어업에 종사하는 집이 45%되며, 주민 소유의 큰 배는 30척이다. 가을에는 멸치, 봄엔 실치(멸치보다 작으며, 멸치와는 종류가 다르다. 말린 것을 뽕어포라고도 한다)가 많이 잡힌다.

초등학교 1개교가 있는데 총 학생수는 25명이며 교사는 다섯 분이다(방춘환 이장 대담).

장골에서는 갈치잡이 나갈 때에 좀 큰 배인 주걱배(주걱같은 배)에 7인의 선원이 타고 작은 배엔 3인이 노 저으며 바다로 나간다.

① 주걱배 노젓는 소리 ; 주걱배를 노 저으며 갈 때의 소리<보령 51③>의 받음구 예는 “영차”이다. 녹도의 주목망 노젓는소리의 “영쳐”와 유사하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2박 1마디씩이다.

② 말장 돌들을 줄러매는 소리 ; 주걱배엔 돌을 가득 싣고 가며, 배의 채장(가로 걸치는 나무)에다 어망과 줄을 딱 걸쳐놓는다. 그 위에다 굴채(동그란 나무) 3개를 놓는다. 굴채고리와 날치(까는 것)고리를 묶는다. 그 위에 망을 짜는 짜개를 놓고 거기다 돌을 네모 반듯하게 쌓은 다음 가마니 덮개로 돌을 덮고서 줄로 줄러 매어 돌막을 만든다.

말장(말뚝)을 세우기 위해 돌들을 줄러매면서 하는 소리<보령 51①>의 받음구 예가 “얼기야하”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2박 1마디씩이되 메김소리는 더 길어져

받음소리와 겹쳐지기도 한다. 음역은 1 옥타브이다.

③ 받어라 ; 배에서 말장에 넣을 돌들을 서로 전달하면서 하는 소리<보령 51②>의 받음구 예는 “바하 더라” 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2박 1마디씩이되 메김 소리는 더 길어져 받음소리와 겹쳐지기도 한다.

④ 연사다리치는 소리 ; 열댓 발 되는 동그런 아람드리 통나무의 아래쪽을 돌막으로 돌리고 가마니로 싸서 짝 재운 말뚝을 굴채로 굴려 바닷속에 집어던진다. 앞에다 말뚝을 두 개 세운다. 말뚝과 말뚝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줄로 묶는데(“아 햐 허 야 차” 하면서 줄을 둘러맨다), 이를 연사다리친다고 한다.

용두(줄 걸 때 쓰는 도구) 2개 있는 걸 하나는 말장에다 걸고, 다른 하나는 배에다 걸고서 “어가야 -” “어가야 -”하면서 힘쓰는 소리를 내며 줄을 잡아당긴다. 뒷줄에는 말뚝을 박지 않고 그냥 가마니에 돌을 담아 묶어놓는다. 그물은 앞이 네모로 트여 있고, 뒤는 막혀 있어 해류를 따라 그물 속으로 들어온 고기가 나가지 못하여 잡히게 된다.

갈치를 다 잡고나면 돌은 바다속에 그냥 버려두고, 말뚝은 뽑아 온다(김연중).

(5) 배치기노래

배치기노래(봉죽타령, 봉지, 봉기, 에밀양, 이물양)는 만선(滿船) 풍어노래이다. 귀향길의 고깃배가 만선의 표시로 봉기를 꽂고 봉기 위에는 연화(蓮花)를 받아 만선의 기쁨을 나타내는 동시에 지나가는 상고선(商賈船)으로 하여금 거래할 물량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이때 배 위에서 기명기(쟁쇠 등)를 치며 흥겹게 노래한다.

또한, 마을어귀에서는 만선 귀향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배치기노래의 전파권은 서해안이다. 그 중에서도 황해도 연안과 경기만 쪽이 그 문화 중심으로 보인다.

신나는 노래인 까닭에 전파범위가 넓어 목포나 진도군의 조도, 소흑산도 등에서도 수집 가능하지만, 이들 전남지역의 것은 아형(亞型)으로 한계지역적인 모습을 드러내나, 보령의 것은 문화중심권에 가깝다.

오천면 녹도의 배치기<보령 48> 경기만의 예(이소라, 『한국 어로요 모음집』 수협 중앙회, 1990. 32쪽)처럼 3분박4박 장단에 본문부분은 2마디인 경우가 많으며, 후렴부분은 3마디, 북장단은 2마디씩이다. 본문 부분의 가사는 2음보가 선율 1마디 안에 배치되는데, 그 1음보는 4~6자 구성이다. 후렴부분의 예는 “에헤 에헤 - 이 아하/ - 아으아 아으 / 으으요 -” 이다.

(6) 굴 따며 부르던 노래

장고도의 부인네들은 굴 따는 작업을 하면서 일반 청춘가 곡풍의 노래들을 잘 흥얼거렸다. 3분박4박 4마디로 구성되며, 제3마디 끝박엔 ‘얼씨구’라는 고정어가 잘 들어간다. 얼씨구 대신에 앞 가사의 끝 ‘든’의 모음 풀이인 ‘으으은’을 넣기도 한다.

일반 청춘가에서는 이 자리에 ‘좋다’가 잘 들어간다.

인천 앞바다 용유도에서도 굴 따는 작업을 하면서 청춘가 곡풍을 애창함을 녹음한 바 있다. 또한 대청도나 백령도에서는 김멜 때에 청춘가를 부르기도 하며, 연평도에서는 모심을 때 청춘가를 잘 불렀다는 예가 있었다(Tape 素88-7-10②A, 87-8-11①, 87-11-23, 87-11-25).

(7) 갈치 낚는 소리, 배 미치는 소리, 배 올리는 소리

- ① 갈치낚는 소리 ; 녹도 위의 호도(狐島) 근해에서 밤에 낚시로 갈치를 낚으며 혼자 푸념하듯 촘촘히 읊조리는 소리로, 잠이 와 죽겠는데 갈치는 안물구... 용왕님께 갈치 좀 물게 해 달라고 하소연 한다. 그러다가 낚시에 갈치가 걸려 올라오면 기뻐 소리친다. 출현음은 (미술)라도레미'(파)술'(라'도')이다.

(파')는 육자배기 선법에서의 꺾는 윗음으로서의 기능으로서만 2회 출현하니 이를 육자배기선법(Y)에 맞추어 해석하면 (시레)미술라시'(도)레'(미'술')에 해당하게 되며, 요성음은 시미라 이다. 음역이 넓어 13도에 이른다.

필자는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에서 밤낚시로 갈치낚는 소리를 녹음(이소라, 『한국의 농요』 제3집, 1989. <악보 802>. 민속원 복간)하였는데, 갈치가 물려 올라오기를 바라며 혼자 흥얼거리는 소리임은 동일하지만, 호도의 경우보다는 훨씬 가락스럽다.

- ② 배 미치는 소리 ; 호도의 해안 모래사장에서 배를 진수(進水)시키기 위해 힘을 모두어 배를 밀던 소리이다. 메김소리를 들으며 힘을 저축하였다가 받음소리를 하면서 힘차게 일제히 민다.

긴소리와 잣소리가 있다. 전자의 받음구 예는 “어 쳐어허” “어 차하” “어이 쳐라” 등이며 후자의 그것은 “어야”이다. 비고정장단 곡이며, 메김선율이 받음선율에 비해 길다. 전자의 음조식은 술선법(S1.v1,4.t4. 또는 t4g.)이다. 후자는 도(레)를 구성음으로 하며, 레와 도를 모두 퇴성하고, 도를 퇴성하면서 중지한다.

함경남도나 속초 해안에서 새로 만든 배를 설망(배를 처음 물에 내림)하기 위해 날바리(모래사장)로부터 든대질(든대와 든대를 받쳐주는 나무괴를 이용한 재래식

이동방법)하여 옮기면서 부르는 든대질소리가 있는데 그 받음구 예는 “자하”이다 (이소라, 『한국 어로요 모음』 앞의책. 37쪽 <수협 10>).

- ③ 배 올리는 소리 ; 외연도에서 큰바람이 부는 날이면 배를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올려야 했기 때문에 배를 올리기 위해 서로 힘내던 소리이다. 선소리꾼이 “(A)어어-이, (B)자니나자 자”와 같이 ‘자자’하며 독려하는 말이나 또는 “(A)올러--(B)간다”, “(A)어깨다- (B)심을 주구”와 같은 의미구로 메기는 동안 힘을 저축하였다가 “이여 어”하고 힘쓰는 소리를 일제히 내면서 배를 한발짝 한발짝 끌어올린다.

메김 선율은 AB 두 부분으로 구분되며, 메김 선율이 받음 선율에 비해 배로 길다. 비교정장단 곡이다. 음조식은 미선법 계통(M2.v1,4.t1.)이다.

4. 동요 · 놀이요 · 흥민요

1) 동요 내지 놀이요

애기어름소리(달강류·불아), 동물 소재(잠자리·부엉이·까치), 다리혜기, 문답동요(동무야 나무가자·어디갔니)와 접신(接神) 놀이요(춘향살이·꼬덕각시) 및 등불써기 노래와 등바루 놀이 노래 등이 수집된다.

(1) 애기어름소리(달강류·불아)

애기어름소리는 돌 되기 전후 아이의 다리에 힘을 들이기 위하여 어른이 앉아서 그 앞에다 아이를 세우고 아이의 두 팔을 잡고서 노래의 리듬에 맞추어 앞뒤로(달강류) 또는 좌우로(불아류) 흔들면서 부르는 소리인 바, 달강류와 불아류가 수집되었다.

달강류는 시작 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보령지방에서는 달강달강, 달궁달궁, 달궁달궁 및 들강달강 형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 달강달강 형이 조금 우세하였다. 이웃 부여군에서도 달강달강 형이 우위를 차지한다. 세상달강·시장시장·세상세상 형은 경기도나 강원도 방면의 유형이며, 들강달강·들강달강·들궁달궁 처럼 ‘들’로 시작하는 형은 전라도 방면에서, 알강달강 형은 경상도에서 선호한다.

달강류의 보편적 줄거리는 밤을 한 되 사 두거나 또는 주워다가 (살강 밑에; 찬장 밑에) 두었더니 생쥐가 들락날락 까먹어버리고 다만 한 톨 남은 것을, 껍질은 다른 식구들 주고 알맹이는 너랑 나랑 둘이서 먹자는 것이다. 보령지방의 것도 이 범주에 들지만, 껍데기나 번데기를 벗겨서 마당이나 토방에 내버린다든지, 웅술에 삶는 대신 담뱃대로 건질까

조랭이로 건질까로 연결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는 색다름이 나온다.

불무류는 술이나 보습 등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에서 널빤지의 두 끝을 널뛰기 하듯 디더 디딤불미(발판불미)로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질에서 따 온 애기어름소리이다. 시작 부분의 어휘에 따라 불무·불미·불매·풀미·불아 형 등으로 분류된다.

경북지방에서는 불미형이, 경남은 불매형, 강원도에서는 풀미형이 강세이며, 전남지방에서는 불무류가 드물다. 불아형은 경기도 방면이, 불무형은 전북지방에서 선호한다.

보령시를 포함한 충남지방에서는 불아형과 불무형이 공존하는 경향이 엇보인다.

(2) 동물노래

동물을 소재로 한 동요로는 잠자리와 부엉이 및 일반형의 까치를 녹음하였다.

잠자리 동요는 아이들이 손이나 잠자리채로 또는 암컷 잠자리를 미끼로 잠자리를 잡으려 할 때, 잠자리가 멀리 달아나지 말고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기를 바라거나 암놈에게로 오라고 유혹하는 내용이다. 보령지방에서는 암컷 잠자리를 미끼로 잠자리를 잡으려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잠자리를 부르는 호칭은 전국적으로 소금쟁이, 잠자리, 자마리, 남자리, 나마리, 철개이, 철베이, 철기, 철비, 찰래비, 짤래비, 수만이, 곰다리, 너나, 짱아 등 다양하다. 보령에서는 ‘잠자리’라 부름이 일반적이다. ‘잠재리’라 발음하는 예가 있었다. 노랫말 중에서 ‘앉은뱅이’, ‘동동아’ 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멀리 가면 ‘똥물 먹고 죽는다’는 일반형도 나오지만, 그 대신에 ‘배암 물려 죽는다’는 이색적인 결말도 있었다.

(3) 다리혜기 동요

다리 혜는 동요는 아이들 여럿이 두 다리를 뺀고 마주앉아 그 다리가 서로 맞물리게 한 다음, 다리 혜는 소리에 맞추어 차례로 다리를 짚어나가다가 노래가 끝나는 박에 짚인 다리는 오뜨리며,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다리의 임자가 지게 되는 놀이동요이다. 시작 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는데, 보령시에서는 ‘이거리 저거리’형과 ‘한거리 진거리’ 형이 우세하다. 그 밖에 ‘한거리 각거리’ 또는 ‘한거리 두거리’형의 흔적이 있다. 이거리 저거리 형은 경기도 지역의 한알대두알대 형과 함께 전파권이 가장 넓은 유형이다.

(4) 문답동요

말잇기 문답동요로는 ‘동무야 나무가자’와 ‘어디갔니’가 수집된다.

① 동무야 나무가자 ; 청소면 마동에서 수집된 예를 보면, “동무야 동무야 나무가자”고

하면 “배 아파 못가겠다”로 받은 다음 “무슨 배냐” “자라 배다”와 같이 (무슨+A, B+A)로 구조를 잡은 뒤, “무슨 자라” “앞 자라”처럼 (무슨+B, C+B)로 이어지며 끝에 가선 “총 권악” 또는 “권악산”으로 종결 짓는다.

1933년도 김소운의 『조선구전민요집』에서는 ‘꼬리따기’라는 제목 하에 동류의 동요를 실고 있다. 결말은 “뿔장, 송장” “붙으면 첩이지” 등 갖가지이다.

- ② 청라면 소양리 출신인 김갑현 제보에서는, “너의 형 어디 갔니”라 물으니 “저건너 산으로 나무 캐러 갔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처음에 물었던 아이가 “어둡게 오걸랑, 밥도 주지 말고 내쫓어라”고 명한다. 이러한 명이 떨어지면 밖에 있던 형은 들어올려 하고 안에 있던 아이들은 이를 막으려 하는 놀이로 이어질 것 같다.

(5) 접신놀이요

접신 놀이요로는 춘향살이와 꼬댁각시가 수집된다. 춘향살이는 예전에 시집갈 무렵의 어린 소녀들이 놀던 놀이이다. 한 아이가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고서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빙 둘러앉은 아이들이 “남원읍의 춘향이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오늘 저녁에 재미있게 놀아 봅시다”하며 주문을 외우듯 반복해 주면 가운데 있던 아이의 합장했던 손이 벌어지면서 덩실 덩실 춤을 추게 되며, 시집가서 잘 살겠는지도 점쳐본다는 것으로, 전파권은 전국적이다.

꼬댁각시는 서부 충남이 출처지로 보이는 서사민요이며, 박복하고 불쌍한 꼬댁각시의 죽은 영혼에 의지하여 접신의 대내림 노래로 활용된다. 꼬댁각시의 이념형은 한 살에 어멈 잃고 두 살에 아범 잃고, 세 살에 걸음마를 배우고 네 살에 말을 배운후 삼촌집으로 찾아갔더니 구박이 심하였다. 그러저럭 십오 세가 되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살이도 어려울 뿐더러 고자 낭군인지라 설움이 북받쳐 연방죽에 빠져 죽어버린다는 슬픈 스토리이다.

(5) 등불써기 노래, 등바루놀이 노래

- ① 등불써기노래(이영소리)는 오천면 삼시도리 1구 장고도에서 선달 그림에, 장가들기 전 14세 이상의 준청년들에 의한 풍어기원 놀이에서 불리었던 소리로서, 각자 민어부레로 풀을 먹인 등을 들고 20명 정도가 일렬로 서서 마을의 집집을 방문하는 길에 대나무로 만든 등채로 등을 치면서 불렀던 소리이다.

리더가 “이영 이영 아하 이영”을 빠른 걸음의 속도에 맞춰 3분박4박 1마디로 소리 내면 다른 소리꾼들은 “이영 소리가 아하 이영”으로 화답하면서 길을 갔다.

② 시집갈 무렵의 장고도 처녀들은 매년 음력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사이에 등바루 놀이를 했다. 이 시기는 중선배들이 연평도 조기잡이를 끝내고 들어와 조금 한가한 때였으며 바닷가엔 해당화가 만발했다. 명장섬이 보이는 해변가에 돌담을 쌓아 등방을 정성들여 아름답게 꾸미고는 백사장에서 놀며 하루를 즐겼다.

노래로는 도라지, 청춘가, 양산도, 아리랑(일반아리랑과 진도아리랑), 동백아가씨, 섬마을선생 등, 장고도 처녀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곡들을 불렀다. 꼬덥각시 놀이 노래도 하였다.

2) 흥민요

흥민요로서는 오서산타령, 금상열이나, 강도령, 감실도령, 영감아 땡감아, 사춘성님, 청춘가, 양산도, 도라지, 오수산 꼭대기, 배저어라, 아리랑(진도아리랑, 일반아리랑), 육자배기, 갈미봉, 노랫가락, 각설이, 약장사 소리 및 백골가 등이 녹음된다.

오서산타령은 청라면과 청소면의 경계에 있는 오서산(烏棲山 ; 790.7m)의 여러 경치를 굿거리장단의 술선법(S1)으로 노래하였으며 청라면 장현리에서 녹음된다. 노랫말은 이창배(1916-1983)의 정리(整理) 속가(俗歌) 중 서울지방의 금강산타령과 연관된다.

‘금상열이나’는 수집하기 드문 노래이다. 앞부분엔 긴 고정구(“야하용 야하용, 어디락 쪽쪽 금상열이나 지글이 금과줄줄 니나 나니가 상사요”)가 들어가는 예는 ‘나네나네 니니가난노 난나노’와 같은 뜻 없는 입타령으로 시작하는 구(舊) 방물가(房物歌 ; 일명 나네타령)에서도 볼 수 있다.

뒷부분은 새각씨가 메뚜기 잡으러 또는 가재 잡으러 다 나간다고 하여 돈벌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서울의 ‘건드령타령’이나 전남지방의 청개골노래에서도 처녀가 돈벌이 나가는 모습을 그린 예들이 있다.

서사민요 강도령의 일반적 줄거리는 책을 옆에 끼고 서당 다니던 강도령이 다른 지방으로 장가를 들었는데, 색씨의 행실이 문란하여 뿌리치고 나와버린 것으로 종결되며, 한반도의 동부지역보다는 호남이나 호서지역에 전파권을 가지고 있다. 보령에서 녹음한 강도령 또는 감실도령에선 책을 옆에 끼고 다닌 것뿐 장가간 얘기가 안나오거나, 분명하지가 않다.

‘사춘성님’에선 시집살이의 정도가 들어누워 명주꾸리 감을 만하다고 하여, 시집살이가 고추보다 더 맵다는 일반적 표현과는 달리 어렵지 않음을 나타내는 바, 흥성군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청춘가는 1930년대 이후에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노래로 장고도에서는 등바루놀이나 굴 캐는 작업 때 또는 산에 지게지고 풀집하러 갈 적에 흥얼거리기도 했다.

진도아리랑은 섬진강 유역 토민들의 오랜 바탕소리인 산아지 곡을 1894년~1912년간에 그 후렴만 바꾼 것이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아리랑(영화아리랑, 서울아리랑)은 1890년대에 등장하였다.

각설이는 일자부터 장자(열십자)까지 차례로 풀이해 나간다고 해서 각설(却說)이 인데, 각 지역 5일장들의 특징을 나열하는 장(場)타령을 넣기도 하고, “품바 품바 품품품”과 같은 추임새를 잘 넣었기 때문에 ‘품바타령’으로도 통하는 2분박리듬의 경쾌한 곡이다.

보령에서는 일자부터 십자까지를 각설하는 가사와 대천장·웅천장·주산장·광천장·홍성장·서천장·판교장·한산장·예산장·온양장·서산장·장항장 및 군산까지 들먹이는 장타령에 처녀총각이 늘어진 데는 몽둥이가 제격이라는 제직이타령뿐만 아니라 통타령-고리타령-귀타령-동타령으로 말잇기를 하는 유별나게 기다란 각설이 타령이 수집된다.

남포 출신의 저산팔구보부상들은 공문제 때에 계화소리(“계화 계화 계화자 좋소”)를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백골가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싸움터로 나가는 청년의 체념적인, 그러나 굴하지 않는 기백을 보이는 노래로 음역은 13도, 3분박4박 8마디를 1절로 하는 장절형식을 취하며 술쪄대선법으로 불리어진다.

5. 의식요

의식요(儀式謠)로는 비손, 농악고사, 당제사 독축과 법사의 앓은굿 독경 및 상부소리를 녹음하였다.

보령지방에 전래하는 동제(洞祭)는 주로 음정월 초사흘부터 십오일 사이에, 택일하거나 고정적으로 지내졌지만, 웅천읍 구룡리 마차울 당제에서처럼 칠월칠석에 지내는 곳도 있다. 당제사 독축으로는 청라면 의평1리 갸발의 당제 독축과 2005년 2월 22일(음정월 14일)에 실시된 대천동 산신제 독축을 채보하였는데 이들의 구성음은 솔도레(S3)이다.

1) 앓은굿 독경

앓은굿 독경에서는 역대축원 앞에 부정경, 육개주, 태을보신경을 독경하고, 역대축원 다음으론 칠성(천신) - 산신(지신) - 용왕 - 삼불제석 - 호구별상 - 신장 - 장군(인간신) ;

도사, 선녀부인, 매화부인, 동자동녀) - 칠선녀 또는 팔선녀(천상선녀, 일월선녀, 칠성선녀, 용궁선녀, 별상선녀 등) 등으로 진행하여 수많은 경이 있으나 본서에서는 육개주(六呪文)와 역대축원문 내지 대축원 및 죽은 녀를 제도하는 해원(넋전 해원경, 사람은 다 죽으니 이승에 대한 미련없이 맺힌 마음을 풀고 기꺼이 저승길로 가자는 내용의 ‘금일정성’, 저승길풀이, 혼신풀이)들을 실었다.

얇은곳의 법사는 혼자 앉아서 태징과 북으로 장단을 쳐 가면서 독경한다. 독경을 시작하기 전에 태징과 북만으로 길고 짧은 3분박리듬을 얼마간 쳐 나가다가 경을 외우기 시작할 때는 태징은 멈추고 북만으로 반주를 해 준다. 음조적으로는 곡에 따라 레전법, 술선법 계통, 도선법 계통 및 육자배기 선법이 보인다.

육개주는 몸을 청정하게 하고 신령이 감응케 하는 주문으로 부정경 이후에 축원의 문을 여는 첫 주문이며, 정심신주(淨心神呪), 정구신주(淨口神呪), 정신신주(淨身神呪), 안토지신주(安土地神呪), 정천지 해예신주(淨天地 解穢神呪) 및 개경(開經)현온주왈로 구성된다.

역대축원문이나 대축원은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로부터 성조대신, 후토당산 신령, 용왕님, 삼신제왕, 호구별성, 공자, 제갈량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신령님과 성인들의 축원을 비는 내용을 비롯해서 안택에 이른다.

넋전해원경은 죽은 남녀의 원혼을 해원하는 내용으로 처음에 육갑해원을 조금 비치다가 젓혀 놓고는 넋전해원을 듣고 소원성취하자며 회심곡으로 들어가서 십대왕 사설로 연결한다. 촘촘히 엮다가 끝을 무당의 어정소리에 가깝게 길게 뻗으면서 단락을 짓고 태징과 북만 막간을 연주하여 몰아가는 형태가 반복된다. 항간에서 듣는 회심곡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2) 상부 소리

보령시의 상부(喪夫)소리로는 초혼(招魂), 반함(飯含), 널액막음소리, 방밖 운구소리, 발인축, 묘터가래질소리, 운상(運喪)소리 및 달구질소리 등을 녹취하였다.

초혼(招魂)은 전국 공통의 통민요적이다. 반함(飯含) 때는, 미루나무 또는 버드나무로 순가락모양을 깎아가지고 쌀알을 고인의 입 안에 떠넣으며 “백석, 천석이오, 만석이오”, “천석이오 만석이오 백만석이오”, “천냥이오 이천냥이오 삼천냥이오” 또는 “반함이오! 반함이오!” 하고 외친다.

널액막음소리로는 ‘중상’류(청라면 송중, 오천면 삼시도, 오천면 소성2리), “중방넘세”

(오천면 녹도), “억시나 억시나”(오천면 장고도), 북! 류(주산면 야룡리·금암4리), “삼살이오”(성주면 개화1리)의 예가 있다. 또한 널액 막는 네구석소리가 없으며, 널 위에 종이 한 장 올리고 “천석이오 만석이오”를 두세 번 외치는 경우(청라면 장산리출신인 조석연)도 있다.

문지방을 나가면서는 “영천(永天)화”(오천면 소성2리)를 찾기도 한다. 보령에서는 방문을 나가 마루를 내려갈 때 미리 엮어둔 바가지를 밟아 깨고 나가는 경향이다. 널액 막고 바가지를 밟아 깨는 풍속은 전국적이지만, 강원도 정선지방을 예로 들면 널액 막는 네구석소리나, 바가지를 밟아 깨고 나가는 풍속이 찾아지질 않는다.

장례 전일의 예행 행사를 안 하는 경향이아, 청라면 황룡2리 송중마을에서는 상여 흐르기를 하였다. 오천면 삼시도의 방밖 운구소리는 “어허 수나”이다. 발인축은 타지방의 예와 공통된다. 묘터 가래질소리로 ‘비(非)낭창형’가래류가 수집된다.

오천면 소성2리의 최은철은 하관 직전의 운구 때도 “영천화 - ”를 부른다. 오천면 장고도에서는 이 경우에 “억시나 억시나” 하며, 어떤 가정에선 “나무아미타불”을 읊기도 한다.

충남지방에서는 역군들이 상여를 올려메거나 내릴 때 요령잡이가 요령을 갖게 흔들면서 “우여 우여 우여…”라고 신호함이 특징인데 남포면 창동1리나 성주면 개화1리에서도 그러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오천면 삼시도에서는 “억시나 억시나” 하며 상여를 올려메거나 내렸으며, 오천면 녹도에서는 상여를 내릴 때 “어허수나”를 몇회 부른 뒤에 “관음보세”하며 상여를 멈추었다.

오천면 소성2리에서는 그냥 종을 자주치면 역군들이 모여들었고 상여 내릴 때는 손 안 닿는 대로 요령을 자주 흔들어 내릴 준비하면 “영천화 - ” 하며 일제히 내린다. 청라면 황룡2리에서는 요령을 갖게 흔들면 역군들이 모여들어 상여를 올려메며, 내릴 때는 “정상이오!” 하며 요령을 갖게 흔든다. 또한 오천면 장고도에서는 북을 동동 올리면 발인꾼들이 각기 자기가 뭘 자리로 들어서며 상여를 올려메거나 내릴 때는 “억시나 억시나” 하는데, 어떤 가정에선 “나무아미타불”을 찾기도 한다.

운상소리 때에 요령을 흔들어 보통이지만(성주면 개화1리, 남포면 창동1리, 주포면 관산리, 오천면 소성2리, 청라면 황룡2리, 대천4동 등), 오천면의 장고도나 삼시도에서는 북을 치면서 운상한다. 대천4동 탑동이나 성주면 성주2리에서는 운상 때 요령을 흔들지만, 호상일 때는 북도 친다.

역군이 요령잡이까지 13명임이 일반적이아 오천면 장고도에서와 같이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선소리꾼 없이 양쪽에 3인씩 하여 6인의 역군이 운상하기도 했다.

오천면 소성2리에서는 상여틀 위에 널을 올려놓을 때 “어가”라 외치며, 요령잡이가 “...잘 있거라” 하고 메감을 신호로 상여 앞머리를 무릎 꿇린다. 그런 다음에 상여를 돌려 먼길을 떠난다.

보령시의 평길 운상소리로는 비(非)넘차류가 대부분이나 미산면 풍산리와 오천면 장고도에서는 넘차 내지 넘차류가 나온다. 또한 청라면 황룡2리와 의평1리의 받음구 끝 부분은 ‘너호’ 형태를 취한다. 비넘차류가 우세함은 충남지방 운상소리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오르막 오를 때에 앞에서는 낮추고 뒤에서는 추켜들어야 함은 보편적인 이치이다. 오르막소리로는 i. ‘어(이)샤’ 내지 ‘어차’류, ii. ‘어수나’ 또는 ‘억시나’ 류, iii. 속도만 잦은 형, iv. ‘어 허이리’ v. 잦은 엽불형 등이 나왔으며, 그 중 iii의 유형이 비교적 많다. i은 청라면서, ii는 각각 녹도와 장고도에서, iv는 주포면 관산리에서, v는 삼시도에서 녹음되었다. 대천4동 명천에서처럼 오르막 오를 때에 소리하지 않고 요령만 흔드는 예도 있다.

평길운상소리는 메김소리(메)와 받음소리(받)가 각각 3분박4박(12/8박) 2마디씩임이 대부분이지만, 삼시도에서는 1마디씩을 취한다. 그 음조직을 보면 거의가 기음종지(t1)한다. 도선법(D)이 절반을 넘으며, 미선법(M) 계통과 술선법(S) 계통 및 육자배기선법(Y)류가 섞여 있다. 채보된 가사를 보면, ‘간다 간다 나는 간다’류가 적지 않음이 눈에 띈다.

회를 다질 때에, 대체로 한강 이북에서는 역군들이 광 안에 들어가 각자 횃대를 쥐고 다지는 경향이 있음에 비해, 그 이하에서는 광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횃대없이 그냥 다지기도 하고, 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봉분달고를 하는 지역, 전남지방에서처럼 달구질 소리가 없거나 빈약한 지역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충남지방은 달구꾼들이 광 안에 들어가 각자 횃대를 들고 다지는 곳(예;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이 있는가 하면 맨손으로 가볍게 다지는 곳(예;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및 회다지기를 하지 않는 곳(예; 서천군) 등이 있다.

보령지방에서도 회다지기를 하지 않는다는 마을이 상당수 있으나 남포면 창동1리, 성주면 성주2리, 대천4동 탑골, 오천면의 장고도·녹도·삼시도 등지에서는 4~8명이 광중회를 다지며, 선소리꾼은 북을 쳐 가며 광 밖에서 메겼다. 역군들은 횃대없이 그냥 다지는데 서로 어깨동무하고 빙빙돌면서 양발을 다 뺨질하며 돌기도 한다.

평토 이후에는 안 다진다.

보령지방의 회다지소리는 장고도의 ‘밭괴’류나 대천동의 달공류에 비해, 달고 내지 달구류가 일반적이다. 충남지방의 받음구 예에는 달고 또는 달구, 달귀, 다지호, 달기호,

달공 등이 있는 바, 금산군에서는 다지호를, 대전에서는 달기호를 선호한다. 달공류는 공주·청양·천안 및 홍성의 일부지역에서 나온다.

충남지방에서는 달'구'에 비해 달'고'가 더 우세한데, 보령에서도 그러하다. 운상소리 때와는 달리, 기음중지가 중간음 중지에 비해 적다. 도선법과 솔선법 계통이 많고, 미선법 계통과 육자배기선법류도 섞여 있다. 받음 선율이 3분박4박 1마디인 경우가 많으나, 오천면 녹도에서와 같은 긴달고는 2마디씩인 예도 있다. 장고도의 발괴류는 3분박2박 1마디씩이다.

6. 악보례

보령시 미산면
내평리

모심기

김동휘(1921. 남.토민) 작
樂 87-4-3-2A

♩ = 150

(매) ○ 무경 - 현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 는다~아아

(발) 상, 사아 디여 허 - 허어

보령시 용천면
노천리

만물소리

김현건(1931.남.토민) 작
集 87-4-3-1B

*발음구 3회중 제2,3회 것 재보. 첫회도 비슷함.

$\text{♩} = 150$
(매)α

해 해 해 에 에 해 해 해 - 해
야 에 이 여 히 히
에 히 이 히 - 여 이
에 히 에 해 에 해 이
늘 고 - 늘 - 세 해
(반) 해 해 해 에 해 에 해 에 해 이
야 에 이 여 히 - 히
에 히 이 히 이 여 히 이 -
어 히 히 히 어 히 이
늘 고 호 오 늘 - 세
(매) 일 락 서산 에 해 이 -
해 가 지 고 호 -
단 풍 서산 에 - - 해 다 - 오 네 해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만물 (산요)

정진옥(1928.남.토민) 작
素 87-4-3-2AB

- * 손으로 만두레매 부른다.
- * 후렴이 없다. 한페가 (A)를 부르고 나면 다른 페가 (B)를 부른다.
- * 도구를 칠 때 부른다.

♩ = 150

(A)

오성 산

계 일 봉 에

금 (ㅎ) 자

해 이 동으로 둘러 있 고

이 히 이 히 히 히 이 여 어

(B)

해다 - 〇 화 - 야 해 - 다 향

화 - 야 제 에영 네 해

이 이 다들 어 보 호 고

위 - - 위 - - 위 - 이 여 아

(*백음 올라간느낌임)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벼바심

(매) 최연순(1925.남.오천면 출생.
1937년경에 관산 이주)
(받) 최기용(1922.남.토민)
이소라 채보(87-4-3-1A)

1. (선창자) 왔나 — (대답) 예 —

(매) 예야 해 (받) 허허 해
(매) 예야 해 (받) 허허 해

(매) 참나무 개상이다, 닭잡구 술먹자
(tutti) 해 해야 어허 허이 해야 해,
어어 디여 나가세 —

♩. = 55-60

(선창자) (대답)

2. 왔 나 예 예 — 이

(매) (받)

예 야 해 예 야 해

(매) (받)

예 야 해 예 야 해

(매)

늘 부 야 칠 보 야 — 몸 단 장 말 어 라

(tutti)

해 여 — 와 어 — 어

예 야 — 해 어 — 디 여

나 가 세

나 가 세 어

3. (선창자) 왔나 — (대답) 어이

(매) 예야 해 (받) 예야 해
(매) 예야 해 (받) 예야 해

(매) 우리가 살머는 몇백년 사느나
(tutti) 해 — 어와 어 어, 해야 해,
어어 나가(세)

보령시 오천면
녹도

주목망 어로요

이규인(1926.남.토민)등 창
萊 02-10-4A / MD 02-10-3 n.4

*나무기둥(柱木)을 세워가지고 망을 쳐서 조기 등을 잡음.

1. 영쳐 - 갈때 하는 소리 -

♩. = 53 ~ 59

(매)α (받)

영 쳐 히 영 - 쳐

(매) (받)

영 쳐 - 영 - 쳐 -

(매)

어 야 디야 차 -

(받)

영 - 쳐 -

(매)

어 영 어 어

(받)

어 영 쳐 -

(매) 어어어어 - / 어여쳐 / 예여 - 어영어어 - / 영쳐 - / 예여쳐차 /

2. 호통감는소리 - 그물 당길때 하는 소리 -

♩. = 50-60



어 야 차 - 디 야 - 차 -



어 야 차 디 여 -

(메) ㅇ 여기 - 여 여차자

(받) 여기 야차 디여 디여



오 동 추 야 달 밝 은 디



어 야 차 디 여



임 의 생 각 이 절 로 - 난 다



어 야 차 디 여 -

(메) 여기야 디여차 - / 어여 차자 / 이 고기를 모두 잡아 /
 서울로 보낼적에 / 빙천에다 실려 보내세 /
 고기도, 많이 들었네 -, 여기야 디여차 / 어야 여차자 /

3. 가래소리 - 고기 피실는 소리 -

♩. = 55~45

(메) ○ 어야, 가래로다
○ 어기여차, 가래로구나

어 이 기 여 차 가 래 - 로 구 나 하

어 여 야 - 가 래 - 야

이 고 기 가 누 구 - 고 낚 가 -

에 어 - 이 야 - 가 래 - - 야

(메) ○ 우리 전주네, 고기던가하
○ 어기여라, 가래로구나

4. 팔리 피실는소리

♩. = 55-60

어 이 수 나 하 어 이 수 나

어 - 하 - - 하 이

어 - 야 하 어 이 수 나

(메) 어이 차아 / 어이 가래다 / 어이 하아 - /

5. 주독망에서 그물을 뜯어다 그물 끌어올림소리

♩. = 53-60

*광희분 재보.

어이 차 어이 차 어이 지 차 하

어이 차 어이 차 어이 지 차

어이 차 이 후 이 후

보령시 청라면
황룡2리 송중

상부소리

(메) 박성진(1934.남.토민)
(받) 김만호(1932.남.노인회장)
유병돈(1936.남.토민)
고길서(1941.남.토민)
素 05-2-21-1B / MD 05-2-21 n.6-9.

1. 초혼 ; 김만호(1932.남.토민)창

"무주 김씨 복! 복! 복!"

2. 반함 ; 김만호(*비드나무 술갈로 쌀을 떠 넣으면서.동전은 안넣는다)

"반함이오! 반함이오! 반함이오!"

3. 널 액막음

— 방 네구텡이에다 각 모서리마다 4회씩 널을 밀었다 덩기며 —

♩ = 85

중 상 맥이 요

*방문 나가 마루내려 갈 때 엮어둔 바가지를 밟아 깨고 나간다.

4. 발인축 ; 김만호

♩ = 100~150

영 - 이 기 - 가 왕 - 즉 유 - 택

재 - 진 견 - 례 영 결 중 천

5. 평길 운상 MD 05-2-21 n.10

*요령을 갖게 흔들면 역군들이 모여들어 상여를 올려준다.
대문쪽을 향하여 상여가 인사를 2회한 후 길을 떠난다.

♩. = 45~55



(발) 아하 하아하 하-, 에 헤이- 너허호



- (매)
- 인제가면 언제 오나, 명년 이매만 오실 것을
 - 자손두고 가기가 섭섭하기 되었네
 - 부대영화이루구서 잘들 잘들 살어봐라
 - 저승자리 가더라도, 너들 복받아 살게 헐테니
 - 미안허기 한이 없다 여우 살이 뉘겨놓고
 - 막내딸이 아버지따러 간다구 외치는디
 - 부모앞에 시집가서 부이부를 생각할때
- (발)
- 아하하아하아 헤헤이 너호
 - 엄마두고 가는 몸이 나영시 섭섭하다
 - 손자키워 가르쳐서 학도금을 넉넉허게
 - 아하하아하 어헤이 너허호
 - 명당으로 찾아가서 번드롭게 살어보세
 - (자손두고 가기가 서운허기 한이 없네)
 - 고만저만 하세요 육들 보셨네 —

MD 05-2-21 n.8

— 자, 사우롬 이리 오쇼, 여기 다리 건너가야 할텐데 노자가 없어 못건너 가신다니
 노자돈 좀 내놓으시오. 자, 노자돈은 내가 받았네요. 자, 세볼 수는 없구.
 호주머니다 넣고, 가십시오. 자, 한발짝 다리 건너가면 비포장이유.
 그런중 아시고 또모셔 봅시다 —

♩. = 46



(메) α
 (*요령) * 아 * 하 * 하 아 — 하 *



* 에 * 헤 이 — 너 * 허 * 허 / S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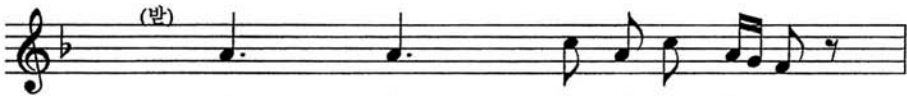
(반) 아하하아하, 에헤이 너허호



(메)
 * 열 * 두 * 군 * 사 * 미 * 안 — * 허 * 네 —



* 비 * 포 * 장 * 도 * 로 * 루 — * 가 * 시 * 게 * 땀 * 네



(반) 아 하 하 아 — 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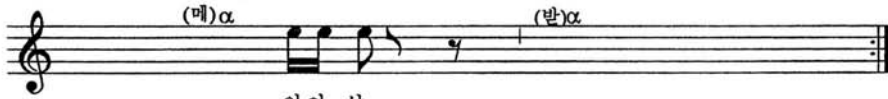
* 에 * 헤 * 이 * 어 * 허 * 호

- | | |
|------------------------------|---------------------------|
| (메) ○ 잘모시세 잘모시세 비포장도로니 잘 모시구 | ○ 아하하아하 에헤이 어허 |
| ○ 따님들도 앞에 나오셔서 부모님 뵙고 | ○ 오호 호호호 헤헤이 너허허 |
| 인사드리고호 | ○ 목적지를 다 오셨네 고만저만 놔드리오 |
| ○ 두번씩만 인사드리고, 봉토준비 하셨으면 | — “정상이요!” 하며 요령을 자주 혼든다 — |

6. 오르막 운상

"앞사람은 허리를 굽혀야 되고, 뒷사람은 일어서세요"

♩ = 50



어 이 샤

(매) 어이샤/ 어이샤/ 어이샤/ 어이샤/

7-1. 긴달고

*시계반대방향으로 횡대없이 광안달구한다.

♩ = 150



에 위 이 - 여 라 다 알 고

(반) 에이, 이여라 다알고



오서 산 - - 산 줄 기 가 - 주 춤 주 춤 내 려 와



이 자 리 에 - - 푼 떨어 - - 겠 네 이



에 위



이 여 라 다 알 고



모란 봉 에 - - 변 하 여 - 대동강 이 될 지 라 도 -

이 자 리는 - 변 동이 - 없으 - 리

(받) 에 위

이 여 라 다 알 고

7-2 잣은 달고

♩. = 50-60

(메)α

아 하 라 다 - 알 고 호

(받1)

어 허 라 다 알 고

(메)

이 구 석 저 구 석 때 놓 지 말 구 서

(받2) 에 여라 다알고

(메) ○ 단단히 다져 볍시다아 / (이하. 받2.)

- 이 자리는 명당일세
 - 자손발복 여초봐기고
 - 손자발복 까지는
 - 달고소리를 우렁차게
 - 발복도 다 귀났네
 - 사위 복까지 보태해서
 - 손자가 안으로 들어가네
 - 손자 복까지 발복되니
 - 외손자 복까지 따러 가구요
 - 고만저만 다지시구서
 - 나오시며는 더졌는디
- 아 옥들 보셨네 막걸리 한잔 잡수시오 —